

●연중 제 20주일 강론

“평화! 평화! 평화를 주옵소서. 그 영원한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성가 44번 ‘평화를 주옵소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잘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루카 12,51-53)고 악의가 가득 찬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성당에 나온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깜짝 놀라서 급방 돌아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듣기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던 신자들 역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의아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평화’이고 집안 식구들과의 ‘일치’인데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으며 집안 식구들이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카 예언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풍전등화의 신세였던 남 유다도 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미카 예언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친구를 믿지 말고 벗을 신뢰하지 마라. 네 품에 안겨 잠드는 여자에게도 네 입을 조심하여라.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미카 7,5-6).

가장 가까워야할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

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불신과 분열, 악이 끼어드는 이러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느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미카 예언자는 호소합니다. 또한 이렇게 악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몸소 원수를 갚아 주시고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줍니다(미카 7,8-10 참고).

오늘 예수님 역시 너무나도 가까워서 악이 감히 끼어들 것 같지 않은 인간관계에도 악이 끼어드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부부 사이나 형제 사이일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싸워 분열을 일으켜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편이 도둑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도둑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생활을 꾸려가야 한다는 이유로 쉬쉬하며 방관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는 말씀은 싸워서라도 그러한 불의한 것에 대항하여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평화는 잠시의 혼란이 두려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싸워 갈라지더라도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싸워서라도 도둑질을 못하게 바로잡는 것,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분열을 일으키러』 왔으며 집안 식구끼리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간이나 형제 간, 부부 간처럼 가까운 사이여서 도저히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은 관계 곳곳에 악이 끼어듭니다. 먼 옛날 미카 예언자 시대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요.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복음적인 것과 비복음적인 것, 또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놓고 갈등합니다. 어둠과 죄가 나날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면서 노력은 하지 않고 “평화! 평화! 평화를 주옵소서”하고 노래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하며 덮어둔 채로 두루 망술하게 살아가지 말고 힘들더라도 싸워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평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노래할 때에야 참 평화가 올 수 있지요. 참 평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분열이나 누군가와 맞서는 일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와의 갈등이라도 개의치 말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양 신부(오금동본당 주임)

사랑은 웃어주는 것

사랑은 웃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하게 무엇을
주는 것이라기 보다
사랑은 마음을 주고 받는 일이기에
그의 마음에 햇살이 들도록
그에게 웃어 주는 일입니다
사랑은 웃어주지 않고
나의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은 나의 이익을 구하기 보다
상대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사랑은 성낸 표정을
짓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은 나의 감정을 드러내어
감정을 상하게 하기 보다는
그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에게 나의 배려를
베푸는 일입니다
사랑은 그 웃음 속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공소일반공지 ●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 바느질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 율뜨레아 : 매월 첫주일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원디어 절하나이다.
온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뵈옵수록 전혀 알 길 없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슬음으로써 믿음 듣든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하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않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년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켈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게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2007 본당 신부님 배 골프대회

▶대회일정: 2007년 8월 20일(월)

10:30-참가자 등록(회비 \$70)/11:30-제1조 Tee Shot / 18:30-골프 종료
19:00- 디너 &시상식(본당 친교실)

▶장소: South Brook Golf Club

P.o. Box 10 Binbrook, Ontario/(905) 692-3592
본당 친교실 공사 상환금 마련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므로 여러분의 관심과 더불어 성의 있는 Cash 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접수: 공소회장)

▶현금 도네이션은 기부자명단 작성 관계로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당일 대회장소 도착은 조편성 관계로 개별
출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부공소 클럽'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성 꾸르실료주말 251차 참가신청접수

▶일 시: 07년 9월 20(오후6시)-23일(오후6시)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참가비: \$280 ▶마 감: 8월 26일

▶신청및 문의 : 김현태(요셉)간사

◎ 책 주문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서적을 본당에서 이번에
주문코저 하오니 책이 필요한 교우는 책 제목과
주문자 성명을 적어 빠른 시일 내에
선교부장(박재영 형제)에게 신청 바랍니다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다.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
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다음주는 성전건립기부금 내는 날입니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8월21일(화) 오후 8시, 성비오10세교황기념미사

▶8월23일(목) 낮 12시, 연중 제 20주간 목요일

▶8월23일(목) 오후 8시, 연중 제 20주간 목요일

◎온타리오 신앙대회

일시 : 9월 13일(목)-15일(토)

장소 : 13일, 14일 (예수성심성당에서 특강)
15일 피들랜드 성지 파견미사 및
김대건신부 부조상 제막식

강사 : 배영진(야고보)신부 ·인도출신

시간: 13-14: 7시 미사, 10시 강의마침

15일 :11시 30분 목주기도

12시미사 / 1시30분 부조상 제막식

동행의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운 한 가지는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 나름의 삶에 충실하
고 있다고 믿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인정해 주
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서로 아픔
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이는 사람과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농사짓는 사람과 직장
인, 도시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나의 일에 충
실하면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알겠습니까!
모르는 부분은 좋게 생각하고, 서로를 향한 동행
의 사랑과 감사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미 사 전 례

해 설 |이민 차주 해설 김근효

화 답 송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28)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봉 헌 (210) 나의 생명드리니
성 체 (16) 주의 잔치
퇴 장 (436) 주 날개 밑

독 서

8월 19일 김호철 김창숙
8월 26일 신상우 신계연
9월 2일 석광원 석호영
9월 9일 김현태 김진선
9월 16일 김용하 김희선

봉 헌

8월 19일 고영호 고기숙
8월 26일 김호철 김창숙
9월 2일 신상우 신계연
9월 9일 석광원 석호영
9월 16일 김현태 김진선

2007-33

2007. 8. 19.

연중 제 20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

2007년 8월 12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42.50

교무금 : \$ 600.00

Total: \$ 1242.50